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림절 2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7. 사랑의 하나님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한해를 보내고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와 고마움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시간을 더 큰 감사와 고마움으로 채워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욕심, 교만과 어리석음은 다 씻어주시고 사랑과 나눔, 겸손과 지혜를 채워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해를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교회들이 오히려 주님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다투며, 각 교회는 더 높은 성전을 지으려 경쟁하고 있습니다. 헤롯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예루살렘 성전보다 높아지려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작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눅2:14	인도자
----------------	-------------	-----

♠ 교 독 문	116. 구주 강림(2)	다함께
---------------	---------------------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	-----------------	-----

대표기도

I. 장성호 선생 II. 김인걸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	-----

찬 양	534(통324). 주님 찾아오셨네	다함께
-----------	---------------------------	-----

성경봉독	I. 눅14:12-24	전수정 학생
------------	--------------------	--------

II. 출19:1-8	오자영 집사
-------------------	--------

찬 양	찬양대
-----------	-----

말 씬	I. 나는 잔치다	김재홍 목사
-----------	-----------------	--------

II. 언약 위에 세운 나라	김기석 목사
-----------------------	--------

거둠기도	다함께
------------	-----

- 찬 송 546(통399).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에 서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더 큰 우리를 이루기 위한 귀중한 노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눈앞의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며 ‘다른 길’을 생각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부끄럽게 반성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마음을 쏟아 지켜가며 살겠습니다. 신뢰와 믿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월례모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찬양인도 : 장성호	강사 : 손성현 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곽권희 집사	김제우 학생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곽상준 집사

12월	영접위원	윤석철 송동준 조관행 장혜숙 이영란 홍선희
	헌금위원	한상익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좋은 기억의 인도

좋은 기억은 좋은 인도함을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의와 실패와 우울의 시간에 좋은 기억을 떠올림으로 새로운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칙흑 같은 어두움 밤에도 우리는 새날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날이 밝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기억 위에 세워집니다. 기억 없이는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들, 예를 들면, 친절한 말, 사랑의 표현, 염려해 주는 마음, 평안이 느껴지는 침묵, 축제 같은 즐거움과 같은 좋은 기억들이 있지만 그것을 늘상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평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과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을 때 그러한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깊이 성찰하거나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기억은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피와 살이 되었습니다. 신뢰, 사랑, 용납, 용서, 희망에 대한 기억이 아주 깊이 우리 존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 있고,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고, 우리의 피가 흐르고, 우리의 허파가 숨을 쉰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적 기억이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 몸 깊이 내재된 기억이 위대한 능력들을 발휘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선지자들은 그러한 기억에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 백성을 인도할 때는 먼저 그들에게 기억을 상기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말로 백성을 인도했는지 보십시오. 그는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지시합니다.(신8:2-14) 그리고 그 백성도 한때 이방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방인들을 박대하지 말라고 권면하니

다. (출22:20, 신10:19)

이사야의 의분에 찬 소리를 한 번 들어 보십시오.

“너희 패역한 자들이 이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사46:8-10)

이스라엘의 선자자들은 백성에게 비참했던 노예 시절과 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하심을 기억시켜 주는 살아있는 기억장치로서 선지자들은 동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좁은 생각들을 넓혀 주었고 영감을 주었으며, 구원을 찾는 이들에게 이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예언자적 사역은 완전히 구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역사를 상기시키시면서 그들의 제한된 시각에 대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현존하심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엘리사, 요나, 솔로몬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자신을 열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닥칠 어려운 때에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요16:4)

제자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셨고 제자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 속에서 그들은 말하고 설교하고 증거하고 떡을 썰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릇된 문화와 비틀거리는 사회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기억은 우리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그 기억은 우리를 도와 믿음으로 이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노예로 살던 땅을 떠나게 합니다.

- 헨리 나우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중에서

집으로 가는 길

가볍게 걸어가고 싶다, 석양 비낀 산길을
땅거미 속에 긴 그림자를 묻으면서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콧노래 부르는 것도 좋을 게다
지나고 보면 한결같이 빛바랜 수채화 같은 것
거리를 메우고 도시에 넘치던 함성도
물러서지 않으리라 굳게 잡았던 손들도
모두가 살갓에 묻은 가벼운 티끌 같은 것
수백 밤을 눈물로 새운 아픔도
가슴에 피로 새긴 증오도
가볍게 걸어가고 싶다, 그것들 모두
땅거미 속에 묻으면서
내가 스쳐온 모든 것들을 묻으면서
마침내 나 스스로 그 속에 묻히면서
집으로 가는 석양 비낀 산길을

- 신경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장영숙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구명자
 김근종 정옥영 김윤수 박상호 김일랑 이은옥 김정길 최숙화 김중수
 이순정 김희진 박홍재 문복순 최현선 박지인 방민 안종일 정현주
 오자영 오진훈 노순옥 강순배 임영 정경례 전월수 홍순구 안홍숙
 김정애 김혜영 방준 조현권 김필순 김윤숙 이증자 박소진 허신열
 무명

월정헌금:

김명순 이교영 김수진 김승현 김순자 박범희 박미영 서정순 안길상
 이형숙 왕수명 윤성종 김윤정 이동천 이병철 김현진 이소순 장재영
 김문주 최윤희 이현순

감사헌금:

박미영 박범희 전성오 김재경 박은정 최용관 김정선 김근종 정옥영
 박병구 김정애 임영 정경례 임미심 조관행 홍선희 이광용 형인순
 배철목사 가족 박권동 하소연 문홍일 이미혜 무명3

녹색꿈 헌금:

임주빈 최현옥 윤석철 장혜숙 안종일 정현주 송희원 채원 우석
 4여선교회 무명

생일감사헌금: 송동준 김진경 김중수 이순정 김수준 박용진 김용원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김정섭	장혜숙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김미순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정복순	차혜심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이명희	문영혜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박옥순	문금석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곽권희	문복순
시온	박효선	허정운	임미심	김정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심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유영남	오복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권명자	김필순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박찬정	안홍숙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교회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교회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이증자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최영혜	조항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 별 월례회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2층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여선교회는 연합으로 <여성의 역할 변화와 돌봄>이라는 주제로 김윤정 집사의 특강을 들겠습니다.
2. **수요집회** : 손성현 전도사님이 2주간에 걸쳐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3. **세례입교교육신청** : 이번 성탄절에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셔서 교육 일정을 상의하기 바랍니다.
4. **기획위원회** :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기획위원회가 열립니다.
5. **당회** : 다음 주일 오후 2시 친교실에서 2009년도 당회가 열립니다.
6. **전화번호부** : 2010년 교우전화번호부를 제작합니다. 전화번호가 바뀐 분들은 1층 로비에 마련된 서식에 새로운 전화번호를 적어주십시오.
7. **설거지 봉사** : 2010년에 주방 설거지 봉사를 하실 분들은 신청서에 성함을 적어주십시오.
8. **하늘양식 신청** : 감리교 가정예배서인 ‘하늘양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에 성함을 적어 주십시오. 한 가정에 한 권씩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9. **신앙실천** : 주위에서 후원행사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하십시오.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 커피 대접 : 박권동 하소연

* 식당 봉사 : 가버나움 속 (다음 주 : 가버나움 속)

* 설거지 봉사 : 김기성 이은정 (다음 주 : 윤종권 이정현)

새교우 소개

하소연 (8여선교회)

박영신 (5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